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3. 7

통일정세분석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3. 7

이기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개요	1
II.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과 양국의 입장	3
1. 한반도 주변 정세	3
2. 양국의 입장	5
III. 한·중 정상회담 관련 주요 내용	8
1.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8
2. 정상회담 외 주요활동	11
IV. 성과와 의의	12
V. 정책적 고려사항	16
[부록]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국/중문)	20

I. 개요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과 위협수위 증가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정세 안정에 중국과의 인식 공유 및 조율이 더욱 중요해짐.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해외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대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전임 대통령들의 해외 방문 순위는 미국, 일본, 중국 순
 -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첫 해외특사 중국 파견
 - 취임연설 대외관계 언급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거론
-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면서 ‘심신지려(心信之旅)’를 방문 슬로건으로 표방함.
 -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으로 중국 신지도부와 신뢰를 돈독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중국정부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중국의 오랜친구(老朋友)’라는 표현을 써가며 크게 환대함.
 - 중국 언론들은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표현
 -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제2의 밀월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에 찬 전망

-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비전을 담은 미래공동성명 채택, 리커창 총리 및 장더장 전국인대 상무위원장과와의 면담, 칭화대학 연설, 중국의 천년고도(古都)인 시안 현 지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함.

- 본 보고서는 한·중 정상회담의 배경과 양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와 의의 분석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

II.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배경과 양국의 입장

1. 한반도 주변 정세

-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 및 주변국들의 견제가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미·중 양국은 지역 내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있음.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추진과 중국의 '핵심이익' 사수로 인한 미·중 간 충돌 우려 증대
 - 미국은 동북아 주요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 기조 유지
 - 중국은 미국과 상생의 신형대국관계 건설을 제안하며 협력 희망

- 그러나 동북아 역내에서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인한 남북, 한·일, 중·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협력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및 군사모험주의노선 유지
 -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독도 등의 영토 갈등 및 역사 분쟁

- 동북아 경제협력 또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자국 주도 경제질서 구축 시도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상이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음.
 - 중국은 한·중, 한·중·일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추구를 통한 자국 중심의 지역 경제협력체제 희망
 -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로 TPP 구상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 유인

- 북한이 3차 핵실험(2·12)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위기 전략을 추구하자 동북아 주요 당사국들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지만, 복잡한 동북아 질서의 구도 이면에는 각자의 셈법이 있었음.
 -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를 명분으로 이를 MD체제 구축 등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자국 주도의 동맹체제 강화에 활용
 -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고려와 미국의 관여 확대라는 부담으로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에 주력
 - 일본은 이를 미·일 동맹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대북 밀사를 파견하는 등 기회주의적 접근

- 북한은 북핵 및 한반도 정세 관련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바, 위기 조성이후 대화공세를 통해 자국의 이해에 유리하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 북한 최룡해 특사 파견(5.22) 및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6.19)
 - 6자회담 등 대화채널 복귀 시사를 통해 중국의 협조 유도
 - 한국, 미국에 대한 대화 우선 제의 등을 통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조성책임 회피

- 최근 미·중 정상회담(6.7~8)에서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상 여전히 인식의 차를 노정함.
 -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강조
 - 중국은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해 선(先) 대화 채널 가동 주장

- 이러한 한반도 및 주변 정세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음.

2. 양국의 입장

가. 한국의 입장

-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한계를 실감함.
 - 중국은 한·미 동맹에 대해, 한국은 북·중 우호관계에 대한 상호간 전략적 의구심 가중
 - 특히, 북핵 등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전략적 이해 차이로 인한 갈등 노정
- 한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통해 정냉경열(政冷經熱)의 한중관계를 정열경열(政熱經熱)의 구도로 전환하고자 함.
 - 박 대통령은 방중 전 인터뷰에서 경제협력에 치중된 과거의 한·중 관계를 정치안보를 포함해 내실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
- 특히, 동북아 역학구도의 변화 속에서 중국과의 대북공조 공간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 측의 진일보한 입장을 기대함.

- 역내 대중 견제 구도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중국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담 증가와 유엔 대북제재 적극 이행 등 변화의 조짐
- 이 밖에도 한국은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구도의 전환기 속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정치·사회적 현안 해결을 희망함.
- 한·중 FTA에 대한 협상 진전 및 IT·금융·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중국어선 서해 불법 조업 문제 해결
 -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및 재중 탈북자 인권문제 개선
 - 중국 내 혐한 정서 및 역사 갈등 해소

나. 중국의 입장

- 중국 시진핑 정부는 출범 이후 국내적으로는 지역 및 빈부격차, 부패, 소수민족문제 등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한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외부의 압력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G2에 걸맞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확대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
- 중국은 미·일 동맹 강화 추세 속에서 한·미 동맹이 미국의 대중 견제 체제에 편입될 것을 우려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환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등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공고화를 주시
 - 중·일 갈등 및 북핵 사태의 악화 추세에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

맹의 연계로 한·미·일 가상 동맹이 태동하는 것을 우려

- 특히, 중국은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견인을 기대함.
 -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 중심의 시장통합 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실
 - 중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 대개발에 한국기업의 투자 유치 희망

- 다만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 관계 확대를 추구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북한 변화만을 위한 편향적 한·중 협력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바탕으로 남북 양측에 균형적 영향력 제고를 희망함.
 -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미국의 대중 견제 약화

Ⅲ. 한·중 정상회담 관련 주요 내용

1.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6.27)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中韓面向未來聯合聲明)을 채택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국관계의 발전방향 원칙 제시〉

- 한·중 양국은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키고 향후 정치·안보, 경제·통상,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에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 발전의 4대 원칙을 제시함.
 - 상호이해와 신뢰제고,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 존중,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 복지 증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 한·중 양국은 2008년 체결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내실화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함.

-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3대 중점 추진 방안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사회 분야 협력 확대 ▲인문유대 강화를 제시함.
 -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 추진
 - 기존 경제협력의 확대와 동시에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목표 확인
 - 양국 간 공공외교 협력 및 다양한 문화교류 촉진

- 상기 중점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5대 액션플랜으로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 ▲경제통상 및 미래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인문유대의 구체화 및 다양한 교류 강화 ▲영사분야 협력 확대 ▲지역 및 국제적 협력 추진을 선정함.
 - 양국 지도자간 소통 강화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 신설
 - 경제·통상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지속 개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의채널 확충
 - 한·중 인문 교류 공동위원회 및 한·중 공공외교포럼 등 신설
 - 한·중 외교관 사증면제 협정 체결 및 한·중 영상협정 조속체결 노력
 - 한·중·일 3국 협력의 안정적 발전과 각종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공동노력〉

-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북한이 당국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중국은 한국의 북핵 불용 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피하는 대신,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공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함.
- 양국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준수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확인함.

〈지역 국제무대 협력〉

- 한·중·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안정적 발전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5월 무산된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함.
-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 최근 역내 역사문제로 인한 상호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것에 우려 표명
- 한·중·양국은 지역 및 국제 협력체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유엔 차원 및 국제경제협력체제에서의 협력 강화를 재확인함.

2. 정상회담 외 주요활동

- 한·중 정상회담 외에 박 대통령은 중국의 권력 서열 2, 3위인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대 상무위원장과와의 면담(6.28)을 통해 심신지려의 행보를 강화함.
 - 박 대통령은 양국관계의 신뢰 구축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강조

- 중국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6.28)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칭화대 연설(6.29)에서 중국어 구사 및 중국 고전 인용 등을 통해 양국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비즈니스를 하려면 먼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어구를 통해 기업 간 신뢰의 중요성 부각
 - 중국 고전 관자(管子)의 구절을 인용, 한·중 젊은이들의 미래 협력 강조

- 또한, 칭화대 연설 직전 박 대통령은 류엔둥 중국 부총리에게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한국 내 중국군인 유해에 대한 송환 의사를 표명함.
 - 심신지려의 뜻에 따른 양국 간 신뢰 증진 차원

- 방중 마지막 날(6.30) 중국의 천년고도이자 과학기술 도시인 시안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인문유대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희망과 의지를 표명함.
 - 시안은 진시황릉 등 고대 유적지로 유명하지만 현재 서부 대개발의 중심이자 과학기술 도시로 육성 중
 - 중국의 주요 투자국 지도자의 서부 대개발 중심지역 방문이라는 상징적 포석
 -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투자 확대 시사

IV. 성과와 의의

〈한·중 지도자 간 상호 신뢰 형성〉

- 박 대통령의 중국어 사용, 중국고전 인용 등의 행보는 중국 지도자들과의 문화적·정서적 교감을 확대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었음.
- 특히, 두 정상은 상호 방문 다자회의 계기 회동,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함으로써 양국 지도자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채널까지 확보함.
 - 이는 양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억제하고 상호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

〈한·중 외교·안보 협력의 확대〉

- 이번 정상회담은 기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특히 정치·안보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됨.
 - 정상간 소통 기제 확대 및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 제고 구체화
 - 특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 구축은 기존 외교 전략대화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 증대〉

- 중국 측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증대 가능성을 제고시킴.
 - 중국 측이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례적
 -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 천명은 한국의 역내 평화 의지의 산물
 - 중·일 갈등의 심화 속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역할 기대 확인

〈북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

-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원칙적으로 재확인함.
 -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북핵 관련 3원칙을 견지한 것은 전통우호관계에 있는 북한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공동이익 부합”과 “유관 핵무기 개발의 위협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등의 표현은 북핵문제에 대한 과거 성명과 비교해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표현은 중국의 북핵 관련 주변정세에 대한 부담과 북한의

핵능력 제고에 대한 위협을 반영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 간 협력 공간 확대 가능성 시사

- 또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국제의무 약속 이행 ▲중국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 의지 확인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 입장 수용 등은 이번 성명의 주요 성과임.

〈경제협력의 질적 심화 및 한·중 FTA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통상협력증진 양해각서 등 7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 중심에서 첨단기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를 합의함으로써 한·중 경제협력을 질적으로 심화시킴.

-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3천억 달러 목표 조기 달성 시도

-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FTA 추진은 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금융·공업부문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중국은 낮은 수준의 FTA 추진을 희망

- 향후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정치적 양보를 견인할 가능성

〈해양 경계 협정, 역사 문제 등 미래 분쟁 가능성의 예방적 억제〉

- 양국은 해양경계 확정협상의 조기 추진 및 어업협력 관련 합의를 통해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등 잠재적 갈등 사안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 틀을 마련함.
 - 양국 해양경계 확정이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공유
 -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단속 협조체제 강화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인문유대 강화〉

-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역정, 중국어 구사,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으로 중국의 기업인, 대학생 및 일반 대중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바, 이번 방중을 통한 공공외교 성과가 컸음.
 - 한국의 중국과의 신뢰 구축 희망을 적극적으로 전달
 - 중국 대중에 대한 친한 정서 제고
-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 한·중 공공외교 포럼 신설 등 인문·문화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한·중간에 기존 교류를 질적으로 심화·발전시킴.
 - 학계 간 공동 사료 발굴 추진 등 한·중 역사 갈등의 최소화 효과 기대
 - 중국의 혐한, 반 한류 정서 확산 억제 및 대중의 정서적 갈등 해소 기제 마련

V. 정책적 고려사항

〈중국의 환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활용〉

- 중국의 환대는 동북아 질서의 재편이라는 구조적 틀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필요성 제고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바, 신중한 판단과 고려로 이를 한·중 협력 확대에 전략적으로 활용함.
 - 미·중, 중·일 갈등 등 동북아 경쟁구도 심화 속에 한국의 조정자 및 피스메이커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고, 이를 중국과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활용
 - 한·중 FTA에 적극적인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활용, FTA 협상시 경제적 실리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 특히,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간 전략적 이익교환에 부속되지 않게 내실 있는 한·미·중 협의체 지속 추진 및 남북관계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

〈북핵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공간 확대 모색〉

-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해결 방법론 상 인식차가 재확인된 바, 기 합의된 전략소통 기제를 활용해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공간 확대 모색이 필요함.
 -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한 압박보다는 강화된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내실 있는 신뢰 쌓기와 점진적 협력 공간 확대 모색

〈전략소통 기제의 활성화를 위한 의제와 논리 개발〉

- 전략소통 기제 및 다차원·다층적 대화 채널 확대는 고무적이거나, 상호간의 전략적 의구심과 희망적 사고로 인해 대화가 공전되거나 오히려 오해와 불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바, 양국 간 협력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의제와 논리 개발이 시급함.
 - 중국 역할론의 과도한 기대와 희망적 사고를 자제하고 새로운 협의와 설득 공간 형성
 - 상호 정치·안보적 우려와 실리를 이해하고 구동축이(求同縮異, 같음을 추구하면서 다름을 줄인다)의 의제 개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구체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지지를 획득한 바,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 구도의 재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이 요구됨.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외에도 남·북·중 경제협력의 청사진 제시
 - 일본의 우경화 추세 속에서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조정자적 비전 개발
 - 원자력,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새로운 의제 주도 및 논리 개발

〈미국과 일본의 불신 우려 완화〉

- 중국과의 정치적 유대 강화는 미국과 일본의 경계와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일본과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경계와 우려 표출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가 한·미 동맹의 근본을 흔들 수 없음을 재확인
 - 역사 갈등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본과의 협력관계 개선 역시 필요

〈한·중 경제협력 확대의 제약요인 극복〉

-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중국의 불만 제기 가능성 및 한국의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는 향후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제약이 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출 선의 다변화를 통한 대중 의존 약화
 -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의 선도적 기술 분야, 문화산업 등 중국이 한국에 매력을 느끼는 공략 포인트 육성

〈대중 통일 공공외교의 강화〉

- 박 대통령의 친중 이미지 형성을 기회로, 중국 내 혐한 정서 약화 및

한국에 대한 호감 제고, 밑으로부터의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유도, 한국 주도의 통일 지지 등 대중 통일 공공외교를 확대 강화해야 함.

- 중국의 인터넷 등 언론의 영향력 확대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추세 활용

〈부록〉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전문)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성대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방문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도 면담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동북아를 포함한 지역정세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가졌으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1.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1-1 양국관계 발전 평가

양측은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 호혜평등, 평화공존, 선린우호의 정신 하에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의 역사적인 수교와 지난 20여 년간의 관계발전이 양국의 번영, 양국민의 복지증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2 양국관계 발전 방향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모두 대폭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양측은 향후 5년간 함께 협력할 양국 신정부가 공히 국민 행복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국정목표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국관계 발전 원칙

이러한 공통된 인식 하에, 양측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으로 첫째,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둘째,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셋째,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넷째, 지역·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 증진에의 기여를 제시하였다.

2.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2-1 중점 추진 방안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가 긴밀히 소통하고, 양국의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전략적 소통을 포괄적·다층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전략적 신뢰를 가일층 제고한다.

이를 통해, 한·중 관계 발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 지역협력 및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도 함께 기여한다.

둘째, 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양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해 나간다.

셋째, 양국민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촉진하고, 특히 인문유대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술, 청소년, 지방, 전통예능 등 다양한 인문분야에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 간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류도 가일층 촉진시킨다.

이를 통해, 양국관계의 장기적·안정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양 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한다.

2-2 세부 이행계획

양측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상기 세 가지 중점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 공동성명의 첨부 부속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상 및 지도자간 빈번한 상호방문과 회담, 서한 교환, 특사 파견, 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을 추진한다.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한다. 외교장관 상호방문의 정례화 및 핫라인의 구축, 외교차관 전략대화의 연간 2회 개최, 외교안보대화, 정당 간 정책대화, 양국 국책연구소간 합동 전략대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위기 등 외부경제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등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지속 개발한다. 또한, 보건의료, 식품안전,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분야에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채널 확충 등의 노력을 강화한다.

셋째,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로서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공동위를 연례 개최하여 관련 협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지도한다. 또한, 교육,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제3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협력해 나간다.

넷째, 양국민간 교류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권익 보호 등 분야에서 영사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3. 한반도

한국 측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중국 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4. 대만

중국 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과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지역·국제무대 협력

5-1 한·중·일 3국 협력

양측은 한·중·일 3국 협력이 3국 각자의 발전에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3국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3국 협력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제6차 3국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5-2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양측은 아시아 지역이 경제 발전과 상호의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역설적인 현상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의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5-3 지역 및 국제이슈에 대한 협력

양측은 지역의 안보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제사회의 안전과 인류의 복지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마약, 해적,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원자력 안전 등 국경을 초월한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이 지역 및 국제 협력체에서도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방적 지역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에서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계속 유지한다.

둘째, 유엔 헌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 인권 존중을 위한 업무에 관해 협력을 더욱 긴밀화한다. 2013-14년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양국 간 유엔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셋째, 세계경제의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경제협력체제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2013년 6월 27일, 베이징

中韓面向未來聯合聲明(全文)

應中華人民共和國主席習近平邀請,大韓民國總統朴槿惠于2013年6月27日至30日對中國進行國事訪問,受到中國政府和人民的隆重歡迎和熱情接待。習近平主席同朴槿惠總統舉行會談。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總理李克強、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委員長張德江分別會見朴槿惠總統。

雙方積極評價1992年建交以來兩國關係發展成果,就中韓關係、朝鮮半島局勢、東北亞及地區形勢、國際問題等共同關心的問題深入交換意見,提出以互信為基礎,進一步充實發展中韓戰略合作伙伴關係的未來願景。

一、兩國關係發展方向及原則

(一) 評價兩國關係發展

雙方一致認為,建交以來兩國本着“相互尊重、平等互利、和平共處、睦鄰友好”的精神,在各領域取得令人矚目的成果。

雙方一致認為,兩國歷史性的建交和過去20多年雙邊關係發展,為實現兩國的繁榮,增進兩國人民福祉,維護朝鮮半島和平與穩定,實現亞洲的共同繁榮作出了積極貢獻。

（二）兩國關係發展方向

双方一致同意，以兩國關係發展成果為基礎，不僅在雙邊、地區層面，而且在維護國際社會和平與繁榮層面進一步推進兩國間的戰略合作伙​​伴關係。双方決定，今后共同大力發展兩國在政治安全、經濟貿易、社會文化等領域的合作。

在朝此方向推進過程中，双方一致認為，兩國新政府將在未來5年間共同合作，把增進國民幸福和人類社會福祉作為優先施政目標和重要驅動力。

（三）兩國關係發展原則

根据上述共識，双方提出了今后兩國關係發展的基本原則：一是提高相互理解和相互信任；二是加強面向未來的互利合作；三是尊重平等原則和國際關係準則；四是為地區及國際社會和平穩定與共同繁榮、增進人類福祉作出貢獻。

二、充實戰略合作伙​​伴關係

（一）重點推進領域

基于以上基本原則，双方同意，應在互信的基础上充實中韓戰略合作伙​​伴關係，為此重點推進以下三個領域合作：

第一，加強政治安全領域戰略溝通。為此，兩國領導人密切溝通，全方位、多層次推進兩國政府、議會、政黨、學術界等多種主體間的戰略溝

通，進一步提高戰略互信。由此，為促進中韓關係發展、朝鮮半島和東北亞的和平穩定、推動地區合作以及為解決全球性問題共同作出貢獻。

第二，進一步擴大經濟、社會領域合作。為此，在擴大現有合作的同時，持續發掘新的合作領域和項目。特別是，雙方再次確認，中韓自貿區的目標應是一個包含實質性自由化、廣泛領域的高水平、全面的自由貿易協定。雙方還對完成模式談判所取得的實質性進展表示歡迎，並指示兩國談判團隊加強努力，使中韓自貿區談判盡早進入下一階段。與此同時，將通過確保國民健康和 safety，共同努力提高生活質量，為創造新的增長動力增進交流。由此，為增進兩國互惠互利、增進兩國國民和人類福祉作出貢獻。

第三，促進兩國國民間多種形式交流，積極推進加強兩國人文紐帶活動。為此，積極推進兩國學術、青少年、地方、傳統藝術等多種人文領域的交流合作。進一步促進兩國公共外交領域的合作和各種形式的文化交流。由此，增進兩國國民間的相互理解和信任，夯實兩國關係長期穩定發展的基礎。

（二）具體行動計劃

為切實推進上述三個重點領域合作，雙方通過聯合聲明的附件，確定以下述五點為中心的具體行動計劃：

第一，推動領導人通過頻繁互訪和會晤、互致函電、互派特使、互通電話等方式進行經常性溝通。推動建立中國主管外交的國務院負責人和韓國總統府國家安保室長對話機制。推動兩國外長互訪機制化，開通兩國外

長熱線。推動兩國外交部門高級別戰略對話增至每年2次。推動舉行兩國外交安全對話、政黨間政策對話、國家政策研究机构聯合戰略對話。

第二，進一步加強經貿合作，加強宏觀經濟政策協調，共同應對國際金融危機等外部經濟風險，持續拓展信息通信、能源、環境、氣候變化等面向未來領域的合作。為分享在醫療衛生、食品安全、人口結構變化等社會領域發展經驗，努力加強、擴充各種協商渠道。

第三，為加強人文紐帶，成立“中韓人文交流共同委員會”，作為政府間協調機構。委員會每年定期舉行會議，確定有關交流合作項目，並指導其落實。加強教育、旅遊、文化、藝術、體育等領域的各種交流，同時將合作把以上領域交流合作擴大至國際舞台。

第四，在兩國國民間交流過程中，在便利人員往來、保護其安全與合法利益等方面加強領事合作。

第五，加強在地區及國際舞台上的合作。

三、朝鮮半島問題

韓方介紹了“朝鮮半島信任進程”構想，表示此構想旨在緩和朝鮮半島緊張，構建持久和平。中方歡迎朴槿惠總統提出的“朝鮮半島信任進程”構想，高度評價韓方為改善南北關係、緩和緊張所作的努力。

双方一致認為，南北双方是朝鮮半島問題的直接当事者，應通過政府間對話等，為解決朝鮮半島問題發揮積極作用。

韓方對朝繼續進行核試驗表示擔憂，明確表示在任何情況下都不承認朝擁核。双方一致認為，有關核武開發嚴重威脅包括朝鮮半島在內的東北亞及世界和平與穩定。双方確認，實現朝鮮半島無核化、保持朝鮮半島和平與穩定符合各方共同利益，一致同意為此共同努力。

双方一致認為，包括安理會有關決議和9·19共同聲明在內的國際義務和承諾應予切實履行。双方決定積極努力，在六方會談框架內加強各種形式的雙邊、多邊對話，為重啟六方會談積極創造條件，以實現朝鮮半島無核化等目標。

韓方贊賞中方為維護朝鮮半島和平與穩定所作努力，希望中方今后繼續發揮建設性作用，推動朝鮮半島發生有利於地區和平與穩定的新變化。

中方重申，支持朝鮮半島南北双方通過對話增進信任、改善關係，最終實現朝鮮民族所期盼的和平統一。

四、台灣問題

中方重申，世界上只有一個中國，台灣是中國領土不可分割的一部分。韓方對此表示充分理解與尊重，將繼續堅持中華人民共和國政府是代表中國的唯一合法政府和一個中國的立場。

五、地區和國際事務合作

(一) 中韓日三國合作

雙方一致認為，中韓日三國合作對三國各自發展和東北亞的和平與共同繁榮具有十分重要的作用。為此，雙方一致認為，應推動以三國領導人會議為首的三國合作機制穩定向前發展，商定為今年第六次三國領導人會議成功舉行共同作出努力。

(二) 東北亞和平合作構想

雙方一致認為，當前亞洲地區經濟發展和相互依存度不斷加深，但政治安全合作相對滯後，特別對最近因歷史及由此引起的問題，域內國家間對立和互不信任加深的不穩定情況持續存在表示擔憂，商定共同致力於實現構建域內信任與合作的共同目標。在此背景下，中方對朴槿惠總統提出的“東北亞和平合作構想”予以贊賞和原則支持。

(三) 地區及國際問題上的合作

雙方一致同意，共同致力於增進地區安全，實現共同繁榮。在大規模殺傷性武器擴散、國際恐怖主義、網絡犯罪、毒品、海盜、金融經濟犯罪、高科技犯罪、核能安全等威脅國際社會安全 and 人類福祉的各種跨國性問題上加強相互合作。為此，雙方決定，在有關地區及國際合作機制中密切開展合作。

双方一致認為，應進一步擴大開放性的區域合作，同意在東盟與中韓日(10+3)、東亞峰會(EAS)、東盟地區論壇(ARF)、亞太經合組織(APEC)、亞歐首腦會議(ASEM)等機制內繼續保持政策協調與配合。

双方一致同意，尊重聯合國憲章精神，進一步密切在國際社會和平與共同繁榮、尊重人權等事務中的合作。以韓國擔任2013年至2014年度聯合國安理會非常任理事國為契機，加強兩國在聯合國層面的合作。

双方一致同意，進一步加強在二十國集團(G20)等國際經濟合作機制中的合作，共同致力於實現世界經濟強勁、可持續、平衡增長。此外，雙方在中韓日自貿協定(FTA)、區域全面經濟伙伴關係(RCEP)等東亞自貿協定討論過程中密切開展合作。

二〇一三年六月二十七日于北京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3-07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전화 : 02-901-2527 팩스 : 02-901-2543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3년 7월
발행일	2013년 7월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